

# 오염 줄이면 인센티브... 환경경영포인트제 도입

### 안산시, 産團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개선 포인트 적립엔 과태료 최대 50% 감경 활용

경기 안산시는 산업단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개선 활동을 유도하고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환경경영포인트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환경경영포인트제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개선 활동에 오염저감 활동에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반월·시화산업단지내 안산시 관할 환경오염물질(대기·폐수·악취) 배출사업장이다.

포인트는 ▲환경관리 전담부서(팀)구성 ▲노후 환경시설 개선 ▲오염물질 배출농도 저감 및 자율점검 실시 ▲환경관리인 교육 이수 ▲환경 관련 협의체 참석 등 환경관리 역량 강화와 시설 개선 활동에 대해 부여된다.

사업장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포인트를 적립 받게 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환경 관련 법규(대기·폐수·악취) 위반 중 고의성이 없는 경우 최대 50% 범위 내에서 과태료 감경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우수 포인트 적립 사업장은 '우수환경기업'으로 선정해 안산시장 표창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안산=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보건소 관계자들이 친환경 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무료 공공순환버스 '노원행복버스' 16일부터 상계권역까지 확대 운행

#### 區, 총 17개 정류장 운행기로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지역내 무료 순환버스인 '노원행복버스' 운행 권역을 상계동 지역까지 확대 오는 16일부터 운행한다.

'노원행복버스'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구가 전액 무료로 운영하는 공공 순환버스다.

새롭게 운행하는 제2노선은 노선심사위원회를 거쳐 중계역~상계역~불암산역 구간으로 최종 확정됐다. 총 운행거리는 11.8km다. 17개 정류장을 편도 운행하며, 소요 시간은 약 1시간35분이다. 25인승 소형버스 4대가 2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기존 제1노선과 연계한 환승 정류장도 운영된다. 환승 정류장은 ▲노원구민회관당시 공영주차장 ▲중계동주민센터 맞은편 은행사거리 등 총 2곳이다. 구는 기존

제1노선(월계·공릉·중계권역)과의 환승 연계에 기반오 권역 간 이동이 더욱 원활해져 생활권 연결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노원행복버스의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은 약 600명으로, 첫 운행 당시보다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물가 시대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효과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비용과 환승 부담 없이 다양한 공공시설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공공시설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버스는 노원구 공공시설 방문객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 고령자, 임신부 등 교통약자는 거주지 관계없이 무상 탑승 가능하다. 정류장 위치 등 자세한 내용은 노원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선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수원역~판교제2테크노밸리 공공버스 9200번 개통

### 市, 우만동4단지 승차난 해소

수원역과 판교제2테크노밸리를 연결하는 경기도 공공버스 9200번이 1일 오후 5시30분 운행을 시작했다.

9200번은 매교역 일대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에 증가한 판교 방면 이동 수요에 대응하고, 기존 1007번 노선의 만차로 발생한 우만동4단지 일대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신설됐다.

노선은 수원역 10번 출구·현철

의역을 출발해 매교역과 인계동, 동수원사거리, 우만동4단지 등을 거쳐 판교제2테크노밸리와 국가기술원 성남분원·코이카까지 운행한다.

수원역과 매교역 생활권을 판교 업무지구와 직접 연결해 출·퇴근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평일 기준 차량 8대를 투입해 하루 40회 운행한다. 배차 간격은 출·퇴근시간대 20~30분, 그외 시간대에는 최대 45분이다.

경기 수원시는 2024년 경기도

공공버스 신규 사업 제안으로 노선 신설을 추진했다.

같은 해 7월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선 신설을 확정했고, 운송사업자 선정과 협상을 마친 뒤 이날 개통됐다.

이번 노선에는 수소버스를 도입한다.

시는 지난 1월 개통한 9100번 호매실~판교 노선에 이어 9200번에도 수소버스를 투입해 친환경 교통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임종민 기자 lim@siminilbo.co.kr

## 경전철 타면 1회당 100원 지역화폐 지급

### 용인시, 이달부터 추가 혜택... 1일 최대 2회 참여 가능

경기 용인시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기후행동기회소득 플러스' 사업에 경전철 이용 활동을 추가한다고 1일 밝혔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플러스'는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에 용인시민의 특화 활동을 더한 프로그램이다. 2025년 말 기준

으로 약 13만명의 용인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용인FC 홈경기가 열리는 미르스타디움에서 텀블러를 사용하는 시민에게 지역화폐 200원을 지급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경전철 이용 활동은 친환경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앞서 지난 4월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경전철 이용 인증 이벤트로 하루 동안 시민 운영했으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정식 운영하게 됐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에 가입한 뒤 경전철 플랫폼이 보이도록 인증사진을 촬영해 등록하면 된다.

참여자에게는 1회당 지역화폐 100원이 지급되며, 하루 최대 2회까지 참여할 수 있다.

용인=오왕석 기자 ows@siminilbo.co.kr

### 송파구, 페트병 무인회수기 확대 스마트 자원순환 인프라 강화

서울 송파구가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10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1일 구에 따르면 주민들의 이용 수요가 급증하고 추가 설치 요청이

해도함에 따라, 자원순환 전문가인노비스(주)와 '스마트 자원순환인프라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기를 2배로 확대했다.

새롭게 도입된 무인회수기는 AI 기기의 객체 인식 기술이 탑재된 것이 특징이다. 라벨이 제거된 투명페트병만 선별·회수하며, 그 외 무인품들은 기기가 스스로 인

식해 자동으로 걸러낸다.

특히, 주민들에게는 훌륭한 '제테코'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투명 페트병을 기기에 넣으면 1개당 일정 포인트(개당 10원 가치)가 적립되며, 누적된 포인트는 현금이나 모바일 쿠폰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마포구, 여름철 생활불쾌곤충 방역 '총력전' 이달 중순 유인물 포집기 설치·친환경 방제

서울 마포구는 여름철 모기와 러브버그 등 생활불쾌곤충 증가에 대비해 생체 방제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기후와 도시 환경의 변화로 생활불쾌곤충 발생 시기와 활동 기간이 길어지면서 관련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구는 겨울철부터 여름철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방제체계를 구축해 생활불쾌곤충 발생 예방에 힘쓰고 있다.

먼저 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300구 미만 공동주택과 2000㎡ 미만 사무실·복합건물, 민원 취약지역 등 288곳을 대상으로 원동모기 유충 조사와 방제를 실시했다.

모기 유충은 정화조와 집수정 등 지하 공간에서 겨울을 나는 경우가 많아 유충 단계에서 방제할 경우 성충 발생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에 보건소 방역반은 현장을 방문해 유충 밀도를 조사하고, 유충이 발견된 곳에는 친환경 생물학적 유충구제제를 투입했다.

구는 여름철 러브버그 발생에 대비한 방역 대책도 추진한다.

먼저 러브버그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방제 작업을 실시한다. 이어 이달 중순에는 주요 발생 지역 수목에 유인물질 포집기를 설치해 개체 수 저감에 나설 예정이다.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자전거도로 1394곳 점검... 99.5% 정비

### 부천시, 방치 자전거도 수거

경기 부천시는 최근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2026년 상반기 자전거도로 일제 점검 및 정비'를 완료했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구 합동으로 지역내 자전거도로 110.38km 구간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 1394곳 중 1387곳을 정비해 99.5%의 높은 정비율을 달성했다.

청소 8곳, 자정 보판대 등 편의시설 정비 103곳 등이 포함됐다.

특히 삼미초등학교 등 학교 주변 8개소 인근에는 교통안전표지를 집중적으로 정비해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를 강화했으며, 공공자전거 대여소 환경개선과 이후 시설 정비도 함께 추진해 이용 편의와 도시 미관을 동시에 개선했다.

이와 함께 방치 자전거를 수거하고 자전거도로내 불법 주차자와 적지물 점검을 시행해 주행 환경을 전반적으로 정비했다. 일부 미정비 구간은 예산 확보 후 순차적으로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부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주요 정비 성과로는 자전거도로 재포장 25곳(정비면적 약 765㎡), 피복 차선 및 노면표시 정비 9개 노선(200㎡), 배수시설 준설 및

### 인천대로 속도 일대 안전점검 인전 서구, 지반 침하 여부 확인

인천 서구는 인천대로 주변 속도 일원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날 현장에는 김상집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가좌3동 동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해 인천대로 주변 속도도 일원에서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아울러 각종 재난예방을 위한 주기적 안전점검을 비롯해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과 연계한 지진을 추진하도록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